

## 진단, 2010년 민간 투자 사업

## 2010년 민간 투자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

윤 병 태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기** 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1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민간 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당해 연도 정책 방향 제시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각 주무 관청별(국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이 국가 정책 목표 및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되어 민자사업이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민자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중인 사업 내용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금년 민자사업의 여건과 과제

그간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사회적으로 긴요한 사회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 편의 증진 및 재정 절감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성장 동력 확충, 복지 지출 소요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여건의 제약을 감안할 때 민

자사업을 통한 재정 투자의 보완 역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및 8월의 두 차례에 걸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특히 수익형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MRG) 폐지에 따른 투자 리스크 증대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며, 올해에도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영 단계로 들어가는 기존 운영수입보장 사업과 임대형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등 장래 민간 투자 관련 재정 소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단계의 내실화도 기할 때이다.

##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내실화

이러한 당면 과제를 감안하여 2010년 민간 투자의 기본 방향은 '재정 보완 역할로서 민간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내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차

질 없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집행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제고 및 사업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첫째, 2009년 하반기에 마련한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하였다. 즉, 부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자 사업자의 수익성 보완과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을 함께 완화하고, SOC 채권 발행 기관 확대 및 신탁형 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한편 BTO·BTL 혼합 방식 등 민간의 투자 위험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2010년도 총 민간 투자비 7.1조원 집행, 총 10.7조원 협약 체결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도록 각 주무관청은 민원 해소, 제반 인허가 등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주기적인 특별 점검 회의를 통해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 요인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신규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국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 주무 부처는 도로·철도 등 시설 분야별 중장기 확충 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전에 마련하고, 중앙 부처, 지자체 등 사업을 추진하는 각 주무 관청은 이런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투자 우선 순위, 기타 상위 계획들과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에 부합하도

록 민자사업 추진시에도 에너지 절감형 시설이나 교통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그간 추진이 부진하였던 정부 고시 방식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 민자사업이 보다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추진·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말한 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민간 제안 방식 2006. 1, 정부 고시 방식 2009. 8)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MRG가 보장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 신규 도입한 '수입증대방안보고제도'와 '자금재조달요청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 부담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민자사업 종합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자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 결과를 향후 민간 투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점검·환류 체계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주무 관청과 각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간의 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운영 단계의 민간투자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익형 민자사업의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이행 표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 61조원 규모 민자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주무 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287건, 61조원(총투자비 기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민자사업

으로 지정되어 추진할 사업이 34건(약 7.5조원), 실시협약 체결이 61건(약 13.4조원)으로 예상되며, 금융 약정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새로 착공할 사업이 85건, 14.8조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착공 사업의 계속공사도 142건, 27.5조원에 이르며, 이 중 44건, 11조원의 사업이 금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도로 사업이 총 30건에 22.9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제3경인도로,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가 금년 중 완공되며, 인천~김포간, 광주~원주간 등 7개 사업은 신규 착공이 기대된다. 서울 은평새길 등 9개 사업은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인천의 검단~장수간 등 6개 사업은 신규 사업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철도 사업은 총 14건에 18.6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 및 인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금년 중 완공되고,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전철 사업이 신규 착공되며, 광명 경전철, 대곡~소사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항만·물류 분야의 경우 12건, 3.3조원 규모로, 환경 분야는 총 73건, 7.0조원 규모, 학교는 총 56건, 3.0조원 규모, 그리고 국방·복지·문화·관광 등 기타 분야도 총 102건, 6.4조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 정책 방향의 수립을 계기로 올해 민간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내용적으로도 성숙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ERIK



## 공연장의 건축음향설계 · 사례

김남돈 지음  
공간예술사 펴냄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예전보다 각종 공연이나 연극, 강연회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음향 이론이 부가된 다목적 홀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대부분의 다목적 홀이 특별한 가변 장치 없이 모든 장르의 공연

이나 연주, 강연 등을 그대로 일괄 적용시킴으로써 그 각각의 장르마다 목표하는 음향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이론과 실례를 심도 있게 논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실무에서 삼선엔지니어링, 건축음향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내 유수의 공연장 건축 음향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 다수의 실적이 있고, 대학에서 이 분야의 연구 활동과 후배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명 공연장 리뷰』라는 대제를 통해 세계 유수의 공연장을 탐방해 실무 사례를 엮어간다는 야심적인 계획 아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 첫 번째인 '일본편'이다.

신  
·  
간  
·  
안  
·  
내